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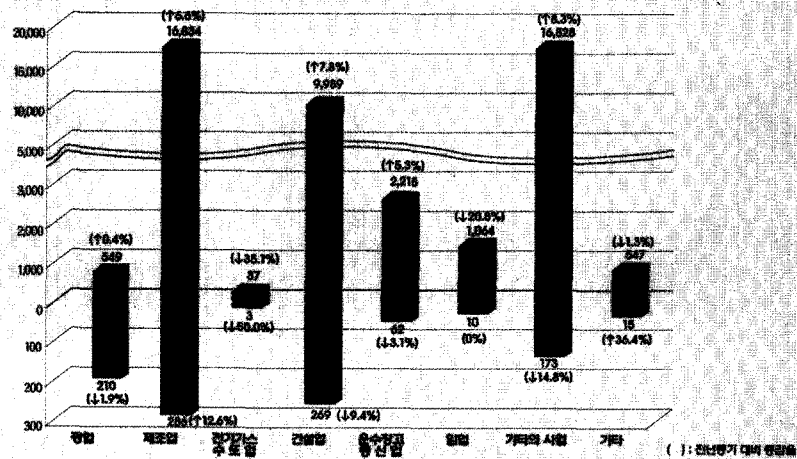
2010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

- 안전기술 편집부 -

우리나라 2010년 상반기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.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10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자 총 48,06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.3%가 증가하며 재해를 0.33%를 달성하고 있다. 산재다발 기간은 여름철인 7월, 8월을 거치면 0.7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는 당초 고용노동부가 목표로 세웠던 0.7%대의 벽을 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. 이에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봤다.

◎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의 증가세 뚜렷



산업재해는 총 70%가 집중되고 있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. 각각 35%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 6.6%와 8.3%의 증가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특히 제조업에 있어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2.6%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이처럼 제조업과 기타사업에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. 5~49인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이 8,640명이 발생했고, 기타의 사업의 재해근로자가 7,891명이 발생 해, 이들 두 개 업종에서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산업재해가 비교적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세부업종으로 구분하면 금속과 비금속, 기계기구, 화학제품 등의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.

▶ 제조업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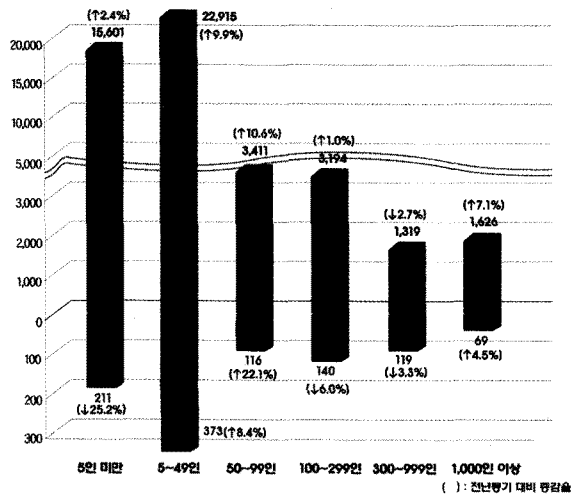
비금속광물제품·금속제품 등 제조업(2,695명, 16%) / 기계기구제조업(2,537명, 15.1%) / 화학제품제조업(1,449명, 8.6%) 순이다.

건설업에서의 재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7.8%가 증가한 9,989명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만명에 가까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.

사망자의 경우도 재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.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제조업이 27.8%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,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3명(50%)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 88명과 기타의 사업 93명 등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.

◎ 중소기업에 재해 집중

구분	5인 미만		5~49인		50~99인		100~299인		300~999인		1,000인 이상	
	5월말	6월말	5월말	6월말	5월말	6월말	5월말	6월말	5월말	6월말	5월말	6월말
재해자 증가율	3.4	2.4	11.7	9.9	12.8	10.6	1.3	1.0	0.6	-2.7	10.0	7.1
사망자 증가율	-25.6	-25.2	12.4	8.4	25.9	22.1	-5.6	-6.0	-16.2	-3.3	3.8	4.5



300인 이상 1,000명 이하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년 동기 대비한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다. 다행스러운 것은 5월 부터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◎ 산업재해는 경인지역, 사망자는 서울지역

고용노동부 행정구역으로 서울청, 부산청, 대구청, 경인청, 광주청, 대전청으로 구분할 때 상반기 산업재해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포함된 경인청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은 15,076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. 이는 전체 재해자수 중 31.4%로 가장 낮은 대구청 4,706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.

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서울청이 가장 많은 271명으로 나타났다. 산업재해 8,582명 중 271명은 산재근로자 100명당 3.2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반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인청의 경우 산재근로자 100명당 1.5명이 사망해 서울청이 산업재해가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